

# 2024 CMSS FESTIVAL I

47th CMSS Young Composers Competition

제47회 창악회 작곡 콩쿠르  
본선 연주회

2024. 4. 26.(금) 18:00

숙명여자대학교 **숙연당홀**

## PROGRAM

< 알파벳 순서 >

김 고 은	“Across the Straits” for String Trio
최 형 수	“Compatible materials” for Flute, Violin and Violoncello
주 시 열	“Madrigal in a Mess” for 2 Clarinets in Bb & Cello
이 정 아	“To nowhere...” for Violin, Viola, Violoncello and Piano
박 민 기	“Wear and tear” for Flute, Clarinet in Bb and Violoncello

- INTERMISSION -

## 제47회 창악회 작곡콩쿠르

### 시상식

- 프로그램에 가입된 순서는 공연순서와 상관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작품의 공연순서는 추첨된 가번호 순서에 따라 연주됩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는 작곡가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 작품소개 >

2024 CMSS FESTIVAL I  
제47회 창악회 작곡 콩쿠르 본선 연주회

### “Across the Straits” for String Trio

나는 최근 해협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이는 나에게 그 자연 현상을 음악으로 구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해협은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를 말하며 좁은 해협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공기의 흐름들이 발생한다. 그 공기의 흐름에서 기인한 바람은 내가 도시의 삶에서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바람이었다. 예를 들면, 해협에서의 공기 혹은 바람의 흐름은 잔잔함과 강함 사이에서 매우 불규칙하였고, 그 소리는 때론 매우 섬뜩할 만큼 기괴했다. 이 곡의 구상 단계에서 나는 해협에서의 공기 흐름이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인위적인 특수 주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악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예: 자연 하모닉스와 개방현에 기반을 둔 음역적인 특징의 활용, 미분음과 클리산도의 사용 등)에 기반 두며 작품을 접근하였다. 더 나아가서, 해협에서의 소리를 단지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자연 현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다각적으로 청각 화해하고자 하였다. 이 곡은 다양한 음악적 매개변수에 의해 A-B-C-A의 구조로 명확하게 구획되며 특히, 나의 또 다른 큰 음악적 관심사인 텍스처의 변화 (폴리포니, 호모포니, 헤테로포니)가 색션을 구분하는 주요 매개변수가 된다.

### “Compatible materials” for Flute, Violin and Violoncello

이 작품은 ‘결합과 구분을 음악 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적 질문에서 시작했다. 이 악곡에서 음악적 재료란 음 소재뿐만 아니라 음형(figure), 각 악기의 다양한 주법 등 포괄적인 영역에 포함되며, 음악이 전개될수록 각기 다른 재료들이 수직, 수평적으로 운용된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매개변수의 결합과 구분을 통해 나온 새로운 재료들이 재차 ‘움직임’을 통해 또 다른 음악적 결과를 형성하기도 한다. 음악적 소재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음색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아울러 이들의 구분을 통해 형성된 긴장감, 그리고 그것이 다시 결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움 또는 이질감이 ‘양립’한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거기에 더해 음악적 요소의 결합과 구분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진행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형성된 음악적 혼란감 즉 리듬적, 구조적 유희가 유 발된다는 점 또한 이 악곡의 특징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음색적 효과를 추구하려 했으며 그 안에서 음악적 유희를 잃지 않으려 했다.

### “Madrigal in a Mess” for 2 Clarinets in Bb & Cello

‘마드리갈’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에 작곡된 세속적인 성악곡의 한 종류이다. 필자는 ‘마드리갈’에서 수평적 흐름, 자연스러운 선율,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직적 긴장과 이완을 주요한 요소로 보았고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보고자 하였다. 또한 두 대의 클라리넷을 이용하여 청자로 하여금 유사한 음색을 통한 성부의 차이를 느끼게 하였다. 두 대의 클라리넷은 배음 활용, 멀티포닉스 등의 특수주법을 통해 여러 성부를 생성하며 첼로는 이를 보조하기도 하며 때로는 두 클라리넷 사이를 연결하기도 한다. 이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두 선율이 시간적 차이를 두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작곡 방식은 이전 시대의 ‘수평’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음과 유사한 소리가 발생하지만 순간적으로 들리는 모호한 음의 발생과 수직적으로 발생하는 협화, 불협화 음정의 관계는 이전 시대의 양식과 맞물리면서도 단순히 선법 또는 조성음악의 관점에서 벗어나 ‘소리(Sound)’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 “To nowhere...” for Violin, Viola, Violoncello and Piano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기약 없이 달려가는 한 인간의 모습. 애써 외면한 무력감과 혼란스러움을 짊어 메고 계속해 보는 그 모습을 담은 곡이다. 이 곡에는 양식적으로 다양한 제스처가 혼재한다. 서로 완전히 다른 요소 간의 빠른 전환은 어지러운 내면을 반영한다. 또한, 실내악곡이지만 여러 번의 짧고 긴 독주 패시지가 삽입되어 있다. 선택한 네 대의 악기 편성을 단지 ‘피아노 콰르텟’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독주 카덴차처럼, 때로는 두 악기의 대화처럼, 때로는 조화로운 사중주 앙상블처럼 다루었다. 이러한 선택과 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흥미로운 흐름을 만들고 동시에 입체적이고 개성 있는 음향을 내고 싶었다. 에둘러 표현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택했다. 내가 선택한 소리가 듣는 이에게 감각 가능한 실재(實在)로써 닿기를 원했다.

### “Wear and tear” for Flute, Clarinet in Bb and Violoncello

“Wear and tear”은 정상적인 마모 또는 노화의 결과로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한다. 이는 물체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수리나 교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Wear and tear”을 피할 수 없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Wear and tear”의 종류에는 신체 부위의 손상, 정신 및 감정의 피로, 질병, 노화 등이 있다. 이 중에 가장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화는 “Wear and tear”과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핵심적인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은 젊음을 동경하고 새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전 것들은 낡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은 보다 나은 기능을 보여주고 빛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화의 과정을 겪은) 이전 것들은 ‘안 좋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생명은 탄생함과 동시에 한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 바로 ‘죽음’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행위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이를 ‘안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안 좋은 것’이 되고 만다. 행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 및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야 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Wear and tear”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찾길 바라며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이 곡에서는 마모, 노화되어가는 과정을 악기의 음색 변화와 현대 주법을 통해 직관적으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인 악기의 연주법에 따른 소리는 청중의 귀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조화롭게 다가가지만 현대 주법이 등장하는 순간 청중에게 소음으로 다가 “Wear and tear”의 과정이 일어났음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작품에는 “Wear and tear”의 과정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여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모습을 담고 있다.